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시, 투자유치 성과 빛났다

道 투자유치 평가 '대상'...2년 연속 쾌거 2조3천635억·882개 일자리 창출 성과

광양시가 2년 연속 투자유치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전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열린 '2024년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투자유치 우수 시·군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투자 실현율, 투자유치 여건 조성 등 17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광양시는 최우수상 시·군 중 최고 점

수를 기록하며 대상을 차지, 2020년 최우수상, 2021년 우수상,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대상에 이어 5년 연속 투자유치 평가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광양시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화오션에코텍,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중타이어어솔루션 등 14개 기업으로부터 총 2조3천63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88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도내 시·군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광양시의 적극적인 기업 친화 정책이 있었다. 투자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확대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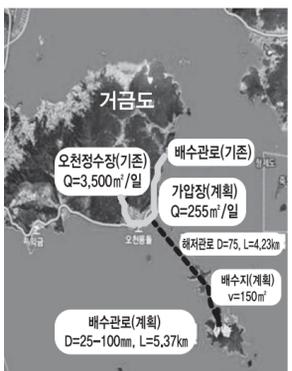


광양시가 지난 13일 전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열린 '2024년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투자유치 우수 시·군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과 관계자들이 트로피와 꽃다발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양시 제공>

개정과 시행규칙 전부개정, 기업 애로사 애로 청취' 시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향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투자협약 기업

단외 분양률을 높이고 신규, 익신, 명당 3지구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고흥 시산도, 국내 최장 해저 관로 상수도 추진 '박차'



227억 투입...해저-육상 통합 배수지 정비해 지역 급수난 해소

고흥군이 육상과 섬을 잇는 최장 거리 해저 관로 상수도 사업(사업 계획 평면도)을 통해 주민 식수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마을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하던 도양읍 시산도 주민에게 맑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국내 단일(육상-섬) 최장 거리 해저 관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227억원을 투입해 해저 관로 4.23km, 육상 관로 5.37km, 통합 배수지 1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착공해 현재 1단계 해저 관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도양 시산도 주민들(135세대·190명)과 김 양시 상시 근로자(400여명) 등은 마을 지하수 고갈과 염리 해저 관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통해 마을 지하수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해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먹는 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도서지역인 시산도에 국내 단일 최장 거리 해저 관로를 이용한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역 급수난 해소와 정수 여건 개선 등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최복환 기자>



담양군, 식품·공중위생 평가 우수기관 선정

식중독 예방·식품 위해요소 차단 관리 등서 호평

담양군은 15일 "2024년 식품·공중위생 업무 시·군 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에 공헌한 우수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품 공중위생 분야 5개 부문 20개 지표를 심사했다.

담양군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식중독 예방과 식품 위해요소 차단 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기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올해 관내 음식점 및 식품 제

조업소,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등 위생 수준 향상에 집중해 왔다.

이병호 담양군수는 "오는 24-25일 진행되는 제6회 담양 산타축제를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업소 대상 친절 교육과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시 겨울철 동파 예방 '총력' 비상근무반 편성·24시 상황실

순천시는 15일 "내년 3월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예방 대책 홍보와 함께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시 상수도과는 6개 대행업체와 협력, 3개반 22명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24시간 동파 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신속한 교체와 가압장, 물탱크,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동파 예방 점검을 실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동파 예방을 위한 수도시설 관리요령 안내문을 각 읍·면·동 사무소에 전달하는 등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티로폼, 헨웃, 현이불 등을 활용해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에 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도계량기 동파나 수도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 순천시 상수도과(061-749-6450)로 신고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계량기·상수도 시설 사전 점검과 동파 예방 홍보를 통해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구례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이 관내 농가를 방문하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겨울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불법소각 금지 캠페인 추진

구례군은 15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및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농업기술센터·산림과·환경

과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구례군은 지난 10월17일부터 산불 감시 인력과 함께 농가를 직접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펼치며 소각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산림 연결지 마을 주민들

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고, 공동체적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근규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 부산물 파쇄 및 수거 지원 사업은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의 문제점을 인식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장성군-SK임업(주), 산림자원 가치 증진 '맞손'

산림사업 발굴 등 탄소중립도시 전환 '속도'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SK임업(주)와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사업 발굴·협력'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권용일 SK임업(주) 담당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K임업(주)는 SK지주회사 계열사로 자연기반해법 탄소배출권 사업 참여, 친환경 에너지기술 도입, 도심내 환경개선, 인공지능 활용 조경관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정책 강화 ▲ESG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산림사업 발굴·이행 등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김한중 군수는 "이번 협약이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연간 100ha 이상 조림사업, 다양한 목재사업 추진 등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蘭산업 일변지' 화순군, 춘란 재배 하우스 개소

비닐하우스 시설 조성...16㎡ 20칸 재배실·기계실 등 마련

화순군이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에 춘란 재배 시설을 조성하며 새로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15일 화순군에 따르면 동면면영회 주관으로 열린 춘란 재배 하우스 개소식에는 구북읍 화순군수를 비롯해 류기준 전남도 의원, 박연면영회장, 김영숙

춘란분과 위원장, 배용일 화순난연합회장, 김정현 동면난우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면면영회 춘란 재배 하우스'는 동면 천덕리 555-1번지에 건축면 517㎡ 규모 1개 동 비닐하우스 시설이다. 하우스 내부는 기계실과 재배실로 나뉘어 있

으며 재배실은 16㎡ 크기 20칸으로 분리됐다.

현재 김영숙 동면면영회 춘란분과 위원장과 춘란 전문 강사인 김정현 난우회장을 중심으로 33명의 회원들이 재배실을 분양받아 품종별 난을 식재하고 있다.

앞으로 동면면영회 춘란 재배 하우스는 화순춘란 재배 교육장(능주면)과 함께 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 폐광으로 침체된 동면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북읍 군수는 "춘란 재배의 시작 단계인 동면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으로 화순이 난 산업 일변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 사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선정돼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에 2025년부터 4년간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화순=이병철 기자>